

드라마·영화로 만나는 소설 주인공들

드라마·영화, 소설과 만나다. 올 한해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강세를 보인 한해였다. 2012년 역시 다양한 원작소설들이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다.

▲2012년을 기다리는 작품들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소설은 2012년 1월 4일 첫방송을 시작하는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원작소설이다.

조선시대 가상의 왕 이희와 기억을 잃고 무너져 살게 되는 연우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사극으로 '드림하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김수현과 한가인·정일우 등이 출연한다.

무엇보다 이 소설이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자 정은결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내년 1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역시 전 세계 독자를 열광시킨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충격적 결말로 일찍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원작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사상 최대의 범죄 스캔들을 그린 소설이다.

신남 강한 기자 미카엘과 웅문신을 한 천재 해커 리스베트가 40년 간 풀지 못한 거대 그룹 손녀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뒤에 감춰진 비밀과 충격적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문제작을 만들어온 데이빗 핀치 감독과 007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만나 원작 이상의 충격과 스틸을 전할 예정이다.

'도가니' '완득이' 올 최고 인기 '해를 품은 달' MBC 드라마로 '여자를 증오한...' 1월 개봉 '7년의 밤' '두근두근...'도 예정

일본 유명 추리소설들의 영화화도 눈길을 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이자, 역대 일본추리소설 베스트 10에 드는 미스터리 걸작 '화차'(변영주 감독)는 촬영을 마치고 내년 3월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약혼녀를 찾아 나선 남자가 약혼녀의 실종 이면에는 빗으로 인해 화차에 올라타고 만 개인과산자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이 영화에는 이선진과 김민희가 캐스팅됐다.

역시 일본 유명 추리소설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2006년 제134회 나오키 상 수상작인 '용의자 X의 헌신'도 영화화된다. 이 작품에는 류승범과 이요원이 캐스팅된 상태다.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를 둘러싼 고종 암살작전의 비밀을 그린 '가비' 역시 소설 '노서아 가비'가 원작이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5개월 가까이 촬영한 후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비'는 '조선 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의 원작자인 김탁환의 소설이다. 박희순·주진모·유선 등이 출연한다.

지난 2001년 출간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등대지기' 역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등대지기(성인)인 후,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틀 롤은 김수미가 맡는다.

그밖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요즘 추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인 정유정의 '7년의 밤'은 1억원이 넘는 권리와 리빙캐런티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역시 관련 협상중이다.

▲2011년을 빛낸 작품들

특히 올해 화제작 중에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았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도가니'를 비롯해 김려령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완득이'가 대표적이다.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도가니'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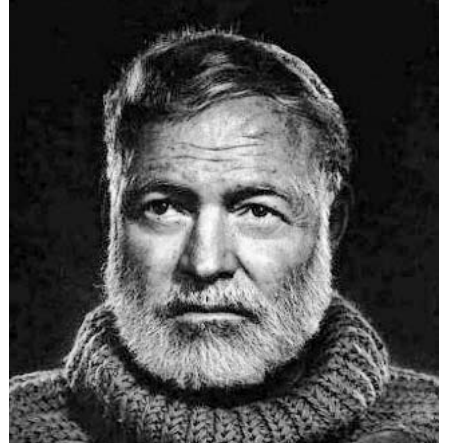
한국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마당을 나온 암탉'도 1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

많은 화제를 뿌리고 종영한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전 2권)는 지난 2006년 발간돼 2011년까지 70만부 정도가 판매되며 '팩션북'을 주도했던 소설로 드라마인기와 더불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씨의 또 다른 팩션 소설이었던 드라마 '바람의 화원' 역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해 헤밍웨이 '출판 大戰'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민음사·문학동네 등 출간 준비



고 밝혔다.

문학동네도 1~2월께 '노인과 바다'(이인규 옮김)를 먼저 선보인다. 현재 번역을 마치고 편집 중이다. 이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무기여 잘 있거라'도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

열린책들 역시 '무기여 잘 있거라'(이종인 옮김)와 '노인과 바다'를 각각 2월과 3월 중에 출간해 세계문학전집 목록에 포함시킨다. /연합뉴스

내년 국내 문학 출판시장에 '헤밍웨이 대전(大戰)'이 펼쳐진다.

출판계에 따르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을 쓴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인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여러 출판사가 헤밍웨이 작품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지난 7월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3년 7월1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헤밍웨이는 종전대로 사후 50년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재 국내에는 '노인과 바다'를 비롯한 헤밍웨이 작품의 번역본이 수십 종 출간돼 있

지만 상당수는 저작권법이 엄격하지 않은 시절부터 출간된 책이거나 저작권 계약을 거치지 않은 '해적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동안 저작권 때문에 헤밍웨이 작품을 출간하지 못한 문학 출판사들이 '합법적으로' 헤밍웨이의 작품을 출간할 수 있게 되면서 출간이 줄이줄이 예상된다.

먼저 세계문학전집을 펴내는 민음사는 내달 2일 '노인과 바다'를 시작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등 장편소설 세 권을 나란히 출간한다. 영문학자 겸 번역가인 김옥동 한국외대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민음사는 이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단편집 한 권도 추가로 내놓아 통일성을 갖춘 '헤밍웨이 전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스티벌 오! 광주' 마지막 날 펼쳐는 환상의 무대

광주문화재단 1년 마무리... 발레·국악 등 다양한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재단 출범 1년을 마무리하면서 '페스티벌 오! 광주'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 31일 오후 5시 빛고를시 시민문화관.

이날 공연에는 발레, 퓨전국악, 스포츠댄스,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원조 사물놀이패의 멤버였던 이광수 씨가 이끄는 이광수 비나리, 국립발레단 출신의 발레리노 이원규, MBC '무한도전' 멤버들의 스포츠 댄스를 지도했던 박지은 씨 등이 출연한다.

아이리라는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소리꾼 임현빈과 박애리씨는 '심청가' 중 '눈 뜨는 대목'과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들려준다. 그밖에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환경미화원, 모범운전자를 비롯해 지난 1년 동안 광주문화재단 문화농부 회원, 문화 재능 기부를 실천한 문화나무예술단 등 시민들이 대거 초청됐다.

본 공연이 끝나고 야외 주차장에서 2부 행사로 오후 7시부터 2011 해넘이 행사가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초청 좌석을 제외한 좌석은 시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



이광수

대리석·유리에 생명을 불어넣다

남도조각회원전, 1월5일까지 롯데갤러리

남도조각회(회장 조술) 28번째 회원전이 2012년 1월 5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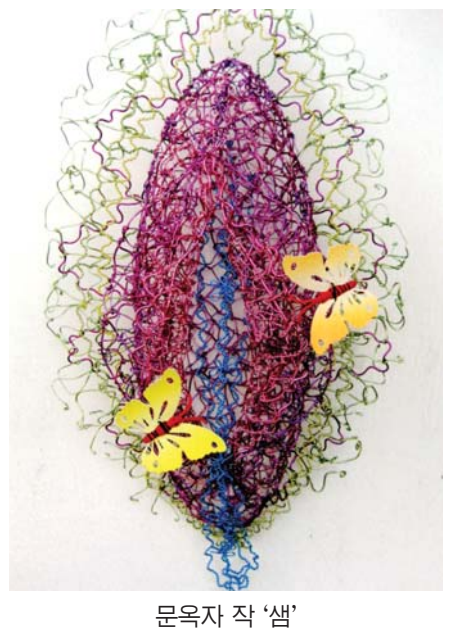
전시회에 참여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대리석, 화강암, 브론즈,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생명감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대길씨는 흰색 인조 대리석을 소재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생명'을 선보이며 김용우씨는 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

리는 소녀의 모습을 담은 테라코타 작품 '기다림'을 출품했다. 또 문기연씨는 하늘을 날아가는 행복한 일가족의 모습을 담은 '날다-진짜로'를 전시한다.

그밖에 고근호·김경자·김대길·김성식·이기원·정춘표·위재환씨 등이 출품했다.

지난 1978년 창립한 남도조각회는 지금까지 매년 정기회원전을 열어오는 등 지역 조각 발전에 힘쓰고 있는 단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옥자 작 '샘'

영화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주환